

Vol.334 July + August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이름은
세아가족
사람들



세아제강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안상열 과장.
저돌적이고 날렵한 그의 능력 아래
불가능한 것들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날카로운 판단력과 뛰어난 능력으로
정의와 도전의 상징이 될 그의 영웅담에 귀를 기울여 보자.





먼저, 나에게
힘을 주라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는 사실에 힘겨워합니다.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나 먼저,
나를 위해,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또 쉽게 무릎을 꿇지만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더 큰 힘을 얻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가는 '함께'라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Contents

Special Theme	02	프롤로그	믿음을 주는 사람
	04	깊은생각 열린마음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
	06	세아의 생각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뢰의 선순환
	08	why&how	'함께' 키워나가는 신뢰관계
	10	세아의 노하우맨	고객의 신뢰를 쌓는 나만의 방법
Story in SeAH	12	SeAH Special Report	2011년 세아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연수 2011 STAK IMP 세아홀딩스 출범 10주년
	20	Open your Team	세아로지스 수출입통관팀
	24	Talk by Specialist	세아제강 생산1팀 소경1공장장 안상렬
Happy in SeAH	28	와이키키 브라더스	세아베스틸 꽃미남 트리오
	32	와글와글	나에게 엄청난 초능력이 생긴다면?
	34	체크리스트	자기 신뢰도 테스트
	38	행복한 나들이	세아엠앤에스 영업팀
	40	세아가 응원합니다	세아에샵 풀잎마을 봉사
	42	세아뉴스	
	47	사우동정	

〈세아가족〉 통권 334호 2011년 7+8월호

발행일 2011년 8월 12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주지
한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서야
주변의 적과 친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꼭 잡아줄
동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힘들어하는 동료의 손을
꼭 잡아줄 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요?

동료에게 신뢰를 기대하기 전에
자신이 믿음을 주는 사람인지를 돌아본다면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팀 프로젝트를 다른 동료가 가로채려하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면, 신뢰의 중요성을 한층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편집실

믿음이라는 것의 가치

신뢰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가족 구성원 간에, 친구 간에, 회사에서, 심지어 물건을 살 때에도 우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은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애초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믿을 수 없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 신뢰를 공유할 사람은 없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 또는 성공한 사람의 곁에는 늘 믿을 만한 인재가 함께 있었다. 삼고초려도 아깝다고 생각지 않았던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그러했고, 세종대왕과 노비 출신이었던 학자 장



영실이 그러했다. 그들이 홀로 모든 거사(巨事)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신중하게 사람을 고른 후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믿음을 나눔으로써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선택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다. 다리우스 3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렉산드로스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그런 와중에 알렉산드로스는 폐렴으로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의사들은 행여나 실수를 저질러 대왕이 죽게 되면 다리우스의 첩자라는 의심을 살까봐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대왕의 건강을 챙겨온 의사 필립은 자신이 준비한 강력한 약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필립이 약을 달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리우스가 모든 의사를 매수했다'는 쪽지를 받았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필립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약이 든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편지를 필립에게 건넸다. 필립이 편지를 읽는 동안 대왕은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이로써 대왕은 완쾌되었음은 물론 그가 부하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입증되었고 이는 군대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끼쳤다.

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필립을 믿지 못해 약을 마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다지만, 그가 부하들을 신뢰

하지 못했다면 역사는 다시 쓰였을 것이다.

조직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할 때의 에너지 소모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물론 아무나 믿을 수는 없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선택한 상대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얼마 전 미국에서 실시한 세계 지도자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 총장의 신뢰도 수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이 20개국 국민 1만 9224명을 대상으로 2달 넘게 (4월 4일~6월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로 나타났다.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등 부정적 평가는 35%였다.

45년 전 미얀마 우 탄트 전 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번째 재선이다.

신뢰의 힘은 매우 크다. 그것은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기도 한다. 군이 고대나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기구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은 시대가 변한 후에도 신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통계학에서 신뢰구간(C Confidence interval)은 '모수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한다. 사실 신뢰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을 투영시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정당할까? 우리의 신뢰구간은 어느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글 ● 세아제강 기획담당 김동규 이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신뢰의 선순환



신중하게 선별된 신뢰의 필요성

〈신뢰의 속도〉라는 책의 저자 스티븐 MR 코비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보다 '누가 나를 신뢰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신뢰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신뢰를 받고 싶어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뢰라는 단어의 빛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신뢰지수가 낮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추구하여야 할 덕목 중의 하나라고 회자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어려움을 새삼 느낀다.

더욱이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더없이 강조하면서 우리는 매일 신뢰라는 굴레를 만들어 끊임없이 밀어 올린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한 순간에 굴러 떨어지는 일도 경험해왔다. 때로는 떨어진 굴레를 시지프스의 바위를 굴러 올리듯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상대를 찾아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는 마음속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에서는 지켜 나가야 할 도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보면 지켜지지 않는 많은 부조리와 마주치게 된다. 타락과 모순으로 점철된 현실 속에서 모두가 바라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을 믿는 마음은 죄가 아니지만 믿어서는 안 될 대상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신뢰를 추구하는 것은 무능한 죄가 된다. 미련한 신뢰 보다는 냉철한 분별력

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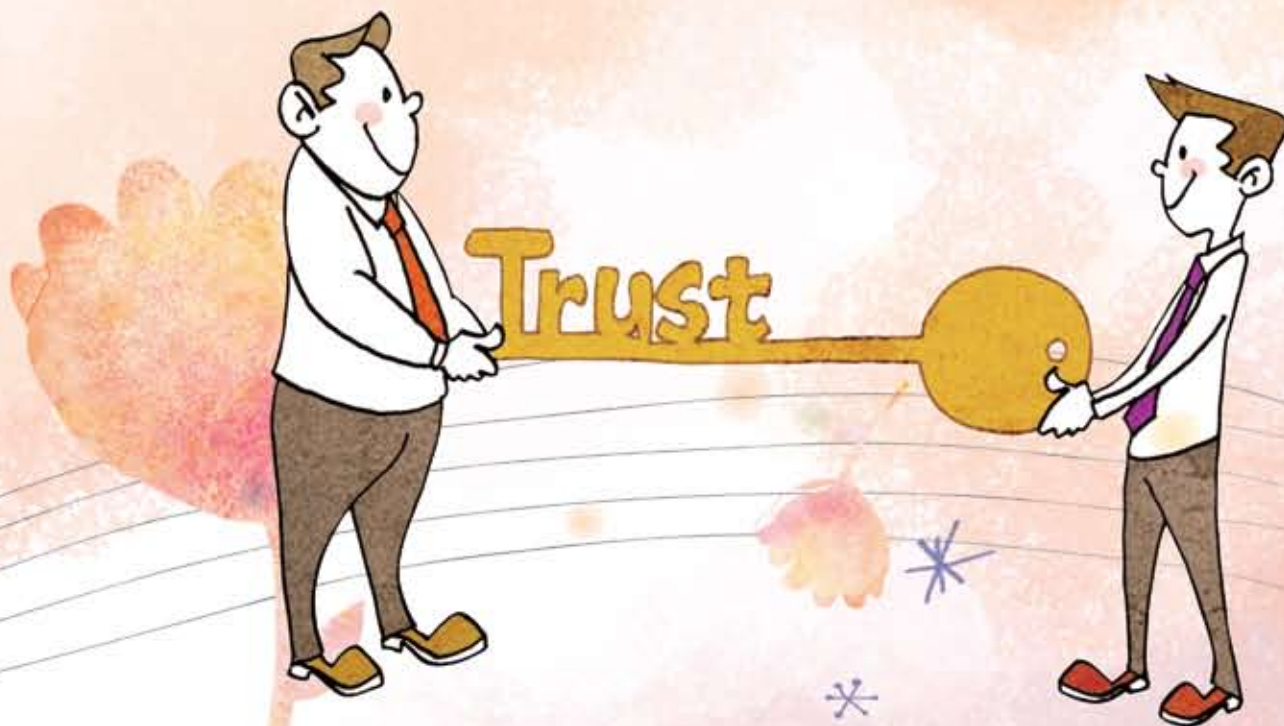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과의 신뢰구간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또 내가 얼마나 남을 신뢰할 수 있는지의 확률을, 100%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스티븐 MR 코비는 신뢰가 있으면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신뢰는 도덕이 아니라 경제적 동력이고 리더십의 으뜸 요인이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비즈니스에서 역시 서로 믿으면 확인 절차가 대폭 생략되고 이로 인해 비용과 스트레스가 경감됨을 우리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려면

과거 일본 주재원으로 일하던 시절, 10년 이상씩 쌓아왔던 관계가 IMF나 금융위기의 고비를 맞으며 한 순간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신뢰라는 단어가 이해타산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허물어질 수도 있구나 일순

좌절한 적도 있었다. 잠시나마 믿음으로 쌓은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쌓아온 서로의 믿음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후 거래처와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뢰가 가져온 단단한 관계와 우리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까지도 때가 되면 주문이 들어오고 간단한 인사나 식사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선이 늘어가는 상황에 비례하여 최근까지도 회사의 실적도 늘어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신뢰가 주는 이익과 힘은 다르지 않다. 직장의 상하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함으로써 얻는 부산물이 많음을 매일 느낀다. 이토록 신뢰는 정말 멋지고 가슴이 뛰게 하는 말이다. 이러한 멋진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 보다는 우리, 지금보다 미래, 눈앞의 당장의 이익 보다는 이로 인해 가슴 아플 이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의 신뢰구간을 더욱 밝고 따뜻한 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일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편안하고 단단한 공조체제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망설임 없이 돌진할 수 있는 기반임은 틀림없다. 서로 신뢰가 쌓인 조직은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단단히 짜인 직물과 같이 위험요소가 파고들 틈이 없는 것이다.

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함께’ 키워나가는 신뢰관계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한다. 품질을 개선하고, 매출액을 늘리고, 개선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일은 상당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이뤄진다. 어디 그 뿐인가? 직장 생활이 유쾌한 일인가, 불편한 일인가의 여부도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의 표현으로 정리하면, 동료 간이나 상하 간에 튼실한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튼튼한 신뢰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신뢰는 마치 오일의 꽃향기처럼 상대방에게 자연스런 믿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는다고거나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할 때, 그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맡은 일을 척척 해 낼 뿐만 아니라 일의 질도 아주 높아서 일단 맡겨놓으면 틀림이 없는 부하이거나 저 사람만 따르면 뭐든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설 때는 서로가 신뢰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권리와 의무를 아주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이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할 뿐이지 번번이 일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신뢰관계를 만들려면 일터에서 건 생활에서건 간에 상대방의 기대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이라도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진심을 갖고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지애를 진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또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신뢰의 기초를 만든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오해 등으로 말미암아 갈등도 생겨날 수 있다. 이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말이다. 이따금 우리는 일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목적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는 처음 출발선에 스스로를 위치시킬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일이건 간에 협업의 목적은 더불어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내는 일이다. 목적을 자주 자주 상기할 수 있다면 크고 작은 갈등은 사소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신뢰를 가로막는 오해를 푸는 법

일을 하다가 불만이 쌓이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분주하게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된다. 관리직으로 오래 일하다 보면 생산이나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진심을 갖고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지애를 진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 또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신뢰의 기초를 만든다.

간단한 처방은 각자가 상대방의 위치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위치시켜 보는 일이다. “내가 상사라면 어떨까?”, “내가 부하라면 어떨까?”, “내가 동료라면 어떨까?”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부하가 상사의 신뢰를 얻는 방법 그리고 상사가 부하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의 위치에 놓이도록 함으로써 신뢰 기반을 튼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입장에 서는 순간 “내가 상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것은 일방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의해서만 들어지고 가꾸어 가는 것이다. 마치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워가듯이 쌍방이 키워가야 하는 것이 신뢰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세아의 영업맨들에게 묻는다!

고객과의 단단한 신뢰를 쌓는 법

한겨울 냉랭한 서리처럼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을 살살 녹일 수 있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일도 해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세아의 얼굴과도 같은 영업맨들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자신만의 방법을 공개합니다.

도 와쥴요
영업맨~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국번디 영업기획팀 권용일 대리

고객과 전화를 하거나 미팅을 시작할 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외모, 복장, 업무능력, 가족(특히 자녀들) 칭찬으로 시작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준 다음에 편안한 상태로 나의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면, 안 될 것만 같은 일도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영업의 정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아특수강 봉강판매1팀 김성욱 과장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아 영업맨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영업의 정도(正道)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고객사와 관련된 2차, 3차 고객까지 자주 방문하여 업무적으로 도움과 관심을 준다면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고객에게 영업사원 이전에 전문가라는 믿음을 주면 고객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신뢰와 정직

세아메탈 서울영업팀 황교순 과장

저만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 제가 추구하는 영업은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 영업'과 '정직 영업'입니다. 최근의 화두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얼마만큼 고객 만족을 실현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없다면, 영업사원이 정직하지 않다면 과연 영업이 가능할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세아특수강 대구영업소 김현태 과장

먼저 고객의 입장이 되어 무엇이 고객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는가를 곰곰이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밝혀지고 해결책이 나오게 마련이죠. 다시 고객과 미팅하게 되었을 때 고객의 말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의견을 존중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라"

세아베스틸 영업1팀 정남호 대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기존의 고객은 당사에서 소lot 생산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원짜리를 모으면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듯이 소lot도 모으면 대lot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과 이익도 증대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 증가, 고부가가치 아이템 생산 가능, 시장 독점 등의 다양한 이점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게 저의 노하우죠.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세아제강 광주영업팀 신종률 대리

논어의 이인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뜻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익관계를 따져서 만나기보다 상생하는 동반자로 신(信)과 의(義)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고, 순간의 이익을 쫓는 소인배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 세아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연수

지금의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세아그룹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26명의 행운아를 만나러 경기도 가평의 교원비전센터를 찾았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신입사원 연수기간은 8박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일과가 결코 녹록지 않았겠지만, 긴 기다림과 힘든 도전을 통과한 이들은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만났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파란색 꿈을 키워가는 그들만의 힘찬 메아리가 구석구석에 울려 퍼진다.

직장인으로 첫발을 내딛다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예절, 비즈니스 상황별 매너와 에티켓 등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동등 떠다니기만 했던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란 생각이 정착하기 시작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부서 협력게임을 통해 기업 각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유형을 진단한 후 유형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우면서 드디어 서먹하던 동기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사란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획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인지하는 기업경영의 이해 시간에는 기초적인 회계재무 지식을 기반으로 기업경영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영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창출 마인드를 느껴보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 출신의 비중이 높은 이번 기수에서는 이 과정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자부심을 마음에 새기다

세아그룹과 세아의 50년 역사를 배우는 시간,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된 교육과정이 진행될수록 신입사원들은 학생의 신분을 벗고 사회인이 된 것을, 또 세아인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신입사원들은 저마다 지원한 계열사가 같지는 않았지만, 자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를 이해하고 각 회사의 제품과 경쟁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로써 신입사원들은 점차 세아를 알아가며 소속감과 자부심을 싹틔웠다.

신입사원 연수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을 하나 꼽는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인지 설명을 듣고 나면 항상 신입사원들의 얼굴이 굳어진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동기들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 걱정, 의기소침 등을 쏟아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보여주며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한다. 부담감이 클 테지만 신입사원들은 가장 자그마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각오를 온몸으로 표현했다.



개성과 열정을 한껏 뽐내다

아이디어 표현과 개발을 위한 UCC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입사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6개로조를 나누어 조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 '세아와 나'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드는 미션이 주어졌다. 최종 기한은 8일째 되는 날이다. 한 편의 UCC를 완성하려면 조원 한 사람도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틈나는 시간마다 여기저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지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꿈을 만든다

팀워크와 문제해결 시간으로 3D 도미노 게임이 새롭게 도입됐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도미노를 완성하여 현수막을 펼치는 최종 미션을 달성해야 한다. 일반 도미노 게임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활용하여 커다란 미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신입사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트랙을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진행 강사는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미션을 달성해 가는 수준이 굉장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 미션을 완수한 후 펼쳐진 현수막에는 여자 신입사원을 기다린다는 작은 바람이 내걸렸다.



동기들과 우정을 나누다

세아그룹의 신입사원이려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야간산행이다. 오대산 휴게소에서 출발해 하조대 해수욕장까지 33.3km에 달하는 행군을 완수해야 한다. 출발할 무렵 공교롭게도 비가 추적 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건 아닌지,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세아의 신입사원들은 전원 무사히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다. 극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입사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며 어려운 과정을 함께 극복했다. 무엇보다 힘든 도전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던 야간행군이었다며 아주 커다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다

마지막 날, 연수기간 내내 신입사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완성한 UCC가 세아의 임원들 앞에 선보여졌다. 작품 속에서 보이는 자신들의 다양한 모습에 여기저기서 웃음 폭탄이 터졌다. 한편 연수원에서의 9일간의 새록새록 떠올라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설렘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신입사원 연수가 끝나고 이제는 추억과 아쉬움이 남으리라. 좀 더 적극적으로 동기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잠시 긴장감을 놓쳐 팀 미션 수행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후회가 마음에 남는다고 해도 연수원에서의 시간을 거울삼아 지금의 초심과 열정으로 훌륭한 세아인으로 성장할 날을 기다려본다.



“여러분은 세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입니다”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 격려사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젊음의 에너지와 가득한 자신감이 느껴져 마음 깊이 든든하고, 기대감이 큰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라 하면, 세아의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각 사에 배치되어 일하면서 업무적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고객입니다. 상사와 동료도 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 직원, 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도, 심지어 잘못 걸린 전화의 당사자도 모두 여러분의 고객입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들과 마주하면서 감사와 겸허로 표방되는 세아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목표지향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라는 말 위에 ‘무엇을 위해’라는 ‘목표’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목적지 설정 없이 열심히 노만 짓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제 자리만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을 병행할 때 성공이라는 단어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세아와 자신의 발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셋째, 평범함 보다는 독특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 모두 꿈을 만들 수도, 펼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재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재능을 찾아 살리고 열정을 쏟아 변화를 일구어 내십시오. 남들과 다른 미래를 가꾸어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아인으로서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일으킨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세아에서 근무하게 될 인재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더욱 크게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핵심 인재로 거듭나 세아를 대한민국 산업계에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큰 재목으로 성장해주십시오.



김후동 팀장
세아제강 군산
생산2팀윤종태 팀장
세아특수강
포항 생산팀곽희진 팀장
세아에셋
생산기술팀김상진 파트장
세아홀딩스
정도경영파트이영국 팀장
세아베스틸
단조팀허원 소장
세아특수강
대구영업소

2011 STAK IMP

위풍당당
출사표 열둘!

2011년 7월 4일부터 6주간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STAK IMP(Intensive Management Program)가 진행됐다. STAK IMP는 세아그룹, TCC동양, 아세아시멘트, 고려제강그룹 등 철강업계 4개사에서 선발된 27명의 차·부장급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위탁 운영하는 상위 사원 레벨의 차세대 리더 양성 핵심과정이다. 세아 내부적으로는 SPEC(SeAH Pre-Executive Course)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경영학 교육 추세에 맞춘 맞춤 교육

세아에서는 SPEC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에 올해는 6개 계열사에서 총 12명의 부장급 리더들이 선발되어 참여했다. 2011년 STAK IMP는 6주간 MBA 과정의 주요 7개 분야(경제학/재무회계/경영전략/리더십/조직·인적자원관리/구매·마케팅/경영과학)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회사에 필요한 테마를 선정해서 연구하여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7월 4일 입학식에 앞서서는 박경민 주임교수가 2011년 STAK IMP 모듈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기존에 5주로 진행되던 본 과정을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보다 과목별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6주 과정으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회계를 포괄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리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배려했다. 또 조직·인적자원관리에서도 조직 내에서의 심리·행동적인 부분과 회사 전체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와 리더십을 다루기로 했다.

이전보다는 경영전략을 많이 확충하여 전략적 사고와 기업 경영, 사

업 전략을 어떻게 혁신할지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을 이룬다. 과거에는 전체적인 과정의 운영을 기초적인 과목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을 전략경영으로 마무리했다면, 이번 과정은 최근 경영학 교육의 추세에 맞추어 전략적 관점을 먼저 접하게 하고 기능적 과목을 학습하면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약간의 학습 운영을 조정했다.

통합적 비즈니스 수행 역량을 갖춘 리더 양성 과정

세아는 올해 STAK IMP 시행으로 SPEC 운영 5회째를 맞이했다. 다른 철강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비해 인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 여러 철강회사들과 공동으로 교육인원을 구성해 SPEC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철강 e-MBA라는 이름으로 4주에 걸쳐 한국외대에 위탁 운영했고, 2005년에는 역시 같은 과정명으로 연세대에 운영을 맡겼다. 2008년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을 통하

여 PEC(Pre-Executive Course)라는 이름으로 8주에 걸쳐 진행이 됐고, 2010년은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STAKK IMP를 5주간 운영했다.

이 교육의 목적은 특정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 비즈니스 수행 역량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즉,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경영지식을 습득하고 적용능력을 함양하여 통합적 관점과 비즈니스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다. 과거의 교육은 조직의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의 기업교육은 최신 경영이론에서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리더가 조직을 이끌 때 필요한 많은 역량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토론 및 과제수행 등의 실천형 교육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 모듈을 재정비해 교육하고 있으며, 현업에서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건훈 팀장
세아베스틸
소형압연팀김재현 팀장
세아에셋
재경팀이석중 팀장
한국번디
재경팀배상수 팀장
세아제강 포항
생산기술팀최영준 팀장
세아제강
대리점팀조오영 팀장
세아베스틸
품질보증팀

세아홀딩스 출범 10주년

기업구조의 **선진화**에 앞장서다

7월 1일 세아홀딩스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서 일반 지주회사로 10주년을 맞이한 곳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IMF 외환 위기 직후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의 시작과 그 맥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세아홀딩스 10주년이 더욱 의미 있다.

세아 도전의 역사에 함께한

세아홀딩스의 10년

세아홀딩스 10년의 여정에는 주변 상황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때도,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내달리던 때도 있었지만 ‘세아홀딩스의 지난 10년을 한 단어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변화와 도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세아홀딩스의 출범 자체가 세아에 있어 새로운 ‘변화’였으며, 세아홀딩스의 10년은 세아의 새로운 도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2001년 세아제강에서 인적 분할하여 출범한 이후 새로운 사업 추진과 국내외 계열사 설립 등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세아홀딩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 창출로

한 단계 더 도약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난 10년보다 더욱 빛나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세아홀딩스는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그 화두는 변화다. 세아홀딩스는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략적 광산개발과 제련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실현하여 세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2010년 광양합금철(현 세아 M&S)을 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편입시켰다.

변화와 도전의

DNA 강화

세아는 위기와 변화를 선두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DNA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수출을 발판으로 자력 성장을 일구고, 세아홀딩스를 출범함과 같이 변화에 선두적이었다. 지난 해 세아의 모태인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지만, 비단 세아제강뿐만 아니라 세아그룹 전체가 창립 후 ‘50’년이라는 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세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그룹을 주도해 온 시간은 길지 않지만, 세아의 새로운 경영환경과 가치의 변화 속에서 다시 한 번 선도하는 회사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01

2003. 12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 인수

철강제조 부문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법정관리 기업인 기아특수강을 인수함으로써 세아는 재계 40대 기업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놓았다.

2001. 07 세아홀딩스 설립

경영자원의 집중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세아제강의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세아홀딩스를 설립했다.



2003



창립 10주년 메시지

“세아의 지속 성장을 일구는데 세아홀딩스가 앞장 서겠습니다.”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

세아홀딩스가 2011년 7월 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아의 지난 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바로 10년 전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를 설립한 것입니다. 세아홀딩스의 출범으로 세아는 새로운 변화와 큰 발전의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 도입을 시작한 직후, 세아는 모범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해, 자회사들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본연의 사업영역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립 이후 10년 동안 세아홀딩스의 큰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세아베스틸을 인수했고, 해외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S&G Holdings 설립, 새롭게 추진한 광산개발 및 제련 사업의 성과로 세아 M&S를 인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아특수강의 코스피 상장을 통해 10년 전 2,545억 원이었던 세아홀딩스의 자산 규모는 현재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아홀딩스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015년 그룹 매출 15조 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아가 추구해 온 투명경영, 신뢰경영, 합리적인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세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 01 세아그룹 윤리경영 선포

경영의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기업만이 21세기에도 생존, 영속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2005



2010. 12 광양합금철(현 세아엠앤에스) 인수

광산개발 및 제련 사업을 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광물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몰리브덴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광양합금철을 인수했다.

2010



2009

2009. 10 2009년 한국재무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가 후원하는 제10회 한국재무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세아그룹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2006

2006. 09 S&G Holdings 설립

해외법인들의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하고자 지주회사의 개념으로 홍콩에 S&G Holdings를 설립했다.

2006. 10 2006년 하반기 최초 그룹공채 시행

세아홀딩스가 출범하고 그룹의 HRD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첫 그룹공채를 실시했다.

땀을 올려라! 새로운 출발이다.

세아로지스 수출입통관팀



세아로지스 수출입통관팀은 그룹사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업무를 총괄하는 신생팀이다. 이 팀은 발족한 지 4개월여 만에 40% 이상 그룹사 물류비 절감이라는 월등한 성과를 보여 놀라운 존재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팀, 막강 파워의 비밀은 무엇일까.

열정, 출발의 또다른 이름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고객들의 요구도 더욱 다양해져 물류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극심한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세아로지스는 물류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인천물류센터를 발족하고 보세창고 사업을 시작했다. 인천물류센터는 연간 24만t의 해상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와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점차 외부 화물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난 3월에는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수출입통관팀이 탄생했다. 인천물류센터는 그 산하에서 인천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그룹사 화물의 보관, 하역, 운송 등을 수행하며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환급 및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수출입통관팀의 역할로 일괄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졌다. 수출입통관팀은 인천물류센터와 더불어 통관과 보관 역할로 서비스를 강화한 한편, 지난 7월 화물 운송 및 주선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앞당기며 글로벌 중추 물류기지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INTERVIEW

“그룹과의 동반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팀의 경쟁력은 바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통관업체에 통관을 의뢰했을 때는 여러 화주들의 통관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만들어진 이래로 각 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뿐 아니라, 그룹사 화물을 최우선적으로 통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팀원들의 단결

물류의 최정예부대

수출입통관팀은 그동안 인천과 평택 지역에 제공하지 못했던 물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룹사 물류에 대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그룹사가 자체적으로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던 통관업무를 일원화 창구가 된 수출입통관팀은 관세사인 강보연 팀장을 필두로 팀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의 물류정보를 파악하고 물류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통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FTA와 같은 다변화되는 통관정보를 취합하여 각 사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객과 직원, 협력회사와 주주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출입통관팀. 조직된 지 4개월 된 신생팀이지만 관세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출입통관팀은 탄탄한 지식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세아그룹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줄 견인차가 될 것이다.

수출입통관팀
강보연 팀장



덕분입니다. 부지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원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일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수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하게 된 이 일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룹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류비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수익 창출을 위한 외부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세아로지스가 육송, 해상, 철송, 출하용역, 보세창고, 항만하역, 수출입 통관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계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경진
세대스틸 외 기타 업체 통관
및 회계담당. 상큼발랄 특특
튀는 말습씨와 애교의 소유자.

박효정
세아제강 및 세아특수강 외
통관담당. 꼼꼼하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으로 인기짱
만능재주꾼 큰언니.



강보연 팀장
통관 및 인천물류센터 업무 총괄.
직원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도사님.

손예나
세아베스틸 외 기타 업체 통관담당.
귀여운 외모에 지성과 교양까지
겸비한 통관팀의 귀염둥이.



김연수 대리
통관업무 총괄. 부드러운 카리스
마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해결
사로 변신! 진정한 차도남.



거짓도 음모도 그 앞에서는 무용지물! 전설적인 영웅이 돌아왔다. 검은 망토, 검은 가면 정의의 수호자처럼 가장 올바른 결정과 단호함을 보여주는 세아제강의 영웅 안상렬 과장. 그의 영웅담은 세아제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정의의 사도 쾌걸 조로의 전설

세 아 제 강 생 산 1 팀 소 경 1 공 장 장

안 . 상 . 렬 .

THE MASK OF ZORRO

김광석의 노래 ‘일어나’처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인생의 고비는 있겠지만 안상렬 과장에게도 인생이란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 짓는 잣대라고 한다면 안상렬 과장의 방법은 전자이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 거센 포항의 바닷바람보다 강한 사람. 외유내강이라고 했던가. 진정한 영웅은 강한 모습보다 부드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포항공장 제품 생산과 설비, 인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유지, 관리,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90명의 식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가고 있는 안상렬 과장의 첫인상은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이었다. 제12회 철의 날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이제 그의 이름에 언제나 붙게 될 수식어다. 안상렬 과장은 큰상을 받았음에도 장관상을 받음으로써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한다.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라 여긴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철의 날 장관상이 가지는 의미는 지난 한 해 생산에서의 성과 뿐 아니라 입사 후 그의 업무 성과가 철강산업에 끼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주는 상이다. 그는 제조능력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제품 개발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높였다. 확대된 외경과 두께 10mm 이상의 후육 강관 12,000t 공급 실현을 통해 심리스 강관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설비 가동률도 10%나 향상됐으며 비파괴 시험(NDT) 불량률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6년 동안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면서는 고급 API 강관, 인발 등 2차 가공용 재료관, 저합금 강관, 내지진용 강관 개발과 홍보활동까지 참여했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그에게 자신의 업무가 가지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밖에서 보면 공장장이라는 위치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90명이라는 대가족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또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이나 고유의 분위기가 있듯이 세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

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세아제강의 발전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

‘소통’이 답이다

● 주변에서 완벽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인 안상렬 과장.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성격입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을 대고야 말아요.”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안상렬 과장이 중시하는 것은 과정이다. 세밀한 분석과 여러 사람과의 분담, 협업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지라도 올바르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다.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와 협업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저는 좌절하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협력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독불장군 타입은 발전할 수 없어요. 상처는 내버려두면 끓아터집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용기를 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마리는 언제나 ‘대화’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가 목표하는 것은 소경1공장의 공적으로 세아업적상에 도전하는 것이다. 안상렬 과장이 좋아하는 가수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세아에 몸담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는 안상렬 과장의 단호한 말투에서 세아의 역사 속에 아름다움을 남길 영웅의 모습이 비친다.

Profile

이름 | 안상렬 (맞춤법이 바뀌어 '열'에서 '렬'로 쓰고 있지만, 선친이 지어주신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별명 | Violet (제비꽃을 좋아해서 ID나 필명으로 써왔어요.)

좋아하는 것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오래된 것에 담긴 추억과 재해석. 머리에 불이 켜지게 하는 아이디어를 갈구하는 편이고,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푹 빠져드는 반면, 추억을 버리지 못하는 수집광이기도 하죠. 요즘 즐겨하는 EBS 시청이나 독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싫어하는 것 | 부정적 바이러스. 특히, 옆 사람까지 힘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기운

좌우명 | Don't worry, Be happy!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힘이 되는 다섯 가지

1 가족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들.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2 친구들

가족에게 터놓지 못하는 고민들도 허심탄화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죠. 아쉬운 점은 눈에서 멀어진 만큼 입사 전 친구들과 소원해진 것이겠지만, 포항에서의 15년, 여기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네요.

3

소경1공장과 세아식구들

저희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멘토이신 상사 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포항공장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공장인 만큼 다사다난하지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네요.

4

공정의 에너지(사랑, 웃음, 칭찬, 격려)

누구나 힘들 때가 있겠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하지만, 공정의 바 이러스로 재충전했을 때의 그 자신감으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5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아파 봐야 그 중요함을 알게 되죠. 건강은 공기, 물과 같아요. 아근과 나쁜 습관(불규칙 식사, 술, 담배)들에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이젠 금연, 절주(酒)도 해야겠네요.

시련을 이겨내는 법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앞의 시련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아베스틸
꽃미남
트리오

수리수리마수리!
여자친구 나와라 뽕!

뽕뽕 찌는 무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위풍당당한 세 남자가 마술을 배우기 위해 명동을 접수했다. 흰칠한 키, 준수한 외모, 뛰어난 스펙에도 솔로인 그들. 한 때 화제가 됐던 책 제목이자 유행어처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그들에게 일 말고, 공부 말고, 연애는 너무 어렵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멋진 마술사의 필수품은 무엇일까? 좌중을 압도하는 입담, 세련된 외모, 깔끔한 수트, 그리고 나비넥타이다. 나머지 필수요소는 다 갖춘 그들이기에 화룡점정, 나비넥타이를 준비했다. 뜻밖의 소품에 금세 떠들썩해진 그들. 생전 처음해보는 아이템이라며 낯설어했다. 형인 김진범 사우가 이홍근 사우에게 애교를 부린다. “이 것 좀 해줘~” 목을 내밀며 장난치는 품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동료보다는 오히려 친구에 가까워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난다.

이들의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에서의 첫 만남이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군산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는 이미 끊겼다. 대구로 돌아가야 했던 김진범 사우와 집이 대전인 한대성 사우는 일단 같은 차를 타기로 했다. 대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데 전화가 왔다. 합격했다고.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두 동기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첫인상이요? 조금 날카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서글서글해요. 게다가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친구죠.” 김진범 사우가 말한다. 정말 그렇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하얀 피부, 날카로운 눈매는 차가운 인상을 주지만 몇 마디만 나누어 보면 털털한 성격을 알 수 있다. 김진범 사우와 한대성 사우는 동기니까 친하다 치고 이홍근 사우와의 인연은 어떨까?

이홍근 사우는 입사도, 나이도 1년 아래지만 두 사람과 뜻이 잘 맞았다. 입사 후 1년간 군산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서울 영업사무소로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달라져 조금 답답했다고 한다. 그때 선배들을 만나 일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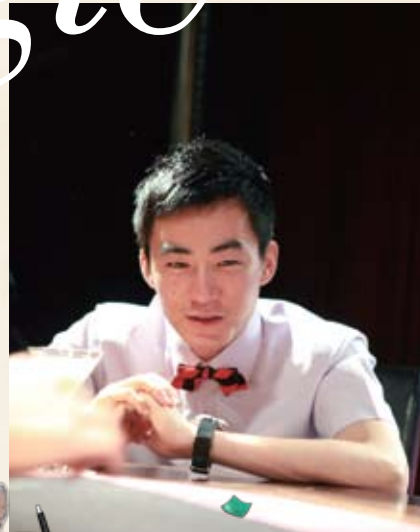
두 선배는 갑작스런 칭찬에 쑥스러운지 손사래를 친다. “별로 도움 준 것도 없어요. 워낙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바르고 수터분해서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단니까요.”



이글이글 눈빛을 빛내는 세 사람

명절이면 텔레비전에서는 늘 마술사가 나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술에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렴풋한 기억 속에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건물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장면 정도는 남아 있다. 조금 더 나중이라면 SBS 교육 오락 프로그램 <호기심 천국>에서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시청자들에게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던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오며 놀라운 시청률을 자랑했던 그 코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술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술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임. 또는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를 뜻한다. 불가사의한 현상을 보면 누구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매직바 <TRICK>

신비로운 마술공연으로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곳. 그러나,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생활마술, 비즈니스 마술 등 개인교습까지 가능하다.

주 소 서울시 중구 저동1가 90-10 라이프빌딩 2층
문 의 02-757-7227



까'하고 눈여겨보게 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던가? 세 사람의 집중과 몰입은 바늘 하나 지나갈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듯 비장미마저 엿보였다. 이런 집중력이라면 세아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볼펜으로 하는 마술이다. “자, 잘 보세요. 편의점에 가면 400원에 살 수 있는 평범한 볼펜입니다.” 마술사 수리의 섬세한 손짓 속에 볼펜 뚜껑은 그의 손에서 콧등으로, 주머니로 여기저기 사라졌다 나타났다. 알 듯 말 듯 신기한 마술에 김진범 사우가 눈썹을 만진다. “진짜 신기해요. 보통 눈속임 도구를 쓰지 않아요? 방금 본 건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마술은 동전 마술. 마술이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의 눈은 매의 눈을 연상케 했다. “와!”하고 “어?”하는 사이에 물건들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전혀 다른 물건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한대성 사우는 계속해서 감탄하기 바쁘다. “학창시절부터 시도는 많이

●이름 | 김진범 ●나이 | 31 ●소속 | 영업지원팀 ●이상형 | 성격이 밝고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 ●매력포인트 |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입담, 동안이 볼수록 매력 ●특기 | 경상도 사투리, 쾌활한 성격과 유머감각

해봤죠. 그런데 마술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 만드는 마술은 없나요?

눈을 땀 수 없는 빠르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마술. 마술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카드마술이 아닐까? 마술사가 카드를 펼치며 무작위로 한 장을 골라 달라고 했다. 김진범 사우가 심혈을 기울여 ‘클로버 5’를 골랐다. “저를 보여주지 말고 그 카드에 사인을 해주세요.” 마술사는 카드를 마구잡이로 섞은 후 테이블에 펼쳤는데, 이게 웬 일? 나머지는 다 뒷면이 붉은 색인데 한 장만 초록색이다. “자, 뒤집어 주세요.” 김진범 사우가 공들여 사인을 한 카드는 분명한데 카드 뒷면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놀란 세 사람이 입을 썉 벌렸다. “분명이 초록색

●이름 | 한대성 ●나이 | 31 ●소속 | 수출팀 ●이상형 | 눈이 예쁜 여자, 사임당처럼 어진 여성 ●매력포인트 | 하얀 피부와 완벽한 브이(V)라인, 섬세한 이목구비 ●특기 | 영어 실력, 초등학교 시절부터 갖고 닦아온 컴퓨터 활용의 귀재



없었잖아?” “희한하네” “희한해야 마술이지” 카드마술을 배워서 타짜를 해도 되겠다며 허허 웃는 세 사람.

휴가도 미루고 마술체험을 강행했다는 이홍근 사우도 대만족한 표정이다. “TV에서나 보던 마술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무척 신기하고 재밌네요. 따로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배워봐야겠어요.” 마술쇼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간단한 마술을 배워 매력남으로 거듭날 기회! 마술사 수리의 다정하고 꼼꼼한 지도 아래 모두 머리를 맞댔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빨대와 휴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빨대와 휴지를 이용해 보여주는 신기한 마술이 궁금하다면 이 세 남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아의 매력남으로 다시 태어난 그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김진범 사우가 짐짓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을 친다. “내년에는 여름휴가를 같이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마술 배웠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마술 보여주면 되겠다. 바다에 빠지는 마술!” 세 사람의 입담에 매직바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이름 | 이홍근 ●나이 | 30 ●소속 | 영업1팀 ●이상형 |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매력포인트 | 넘치는 매너와 편안함, 시원시원한 말투 ●특기 | 180cm의 환철한 키, 수영, 스노우보드, 등산 등 각종 운동



세아제강 판재
품질경영팀
박세균 과장

세아제강의 스타가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능력은 두 가지! 우선, 영화 <넥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영화 속에서는 자신의 2분 후 미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철강제품의 수요와 가격에 관련된 3개월 후의 미래를 보는 거다. 요즘처럼 원재료 가격 및 시황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 3개월 후의 미래를 정확히 보고 계획을 짤 수 있다면 세아제강에 내 팬이 많이 늘 것 같다.

또 하나는 순간이동 능력이다. 내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연료로 하여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쌓이는 체지방 걱정도 없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아닐까? 다만 과도한 순간이동으로 피골이 상접해지는 일은 없어야겠지.

세상 샐러리맨들의 친구, 바로 나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 때는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조금 천천히 흐르게... 월요일이 생기는 월요일은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일요일 저녁은 느려지도록 만들어 지구촌의 모든 샐러리맨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와우~~ 정말 행복하겠다.



세아제강 창원
업무지원팀
이인호 대리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영화 <초능력자>에서 강동원이 맡은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초능력자였다. 비록 기구한 가정사와 환경 때문에 약한 사람이 되어 그 능력을 나쁘게 사용하지만 그만큼 좋은 초능력이 있을까? 부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돈도 좀 얻어내고 정치가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나라도 움직이고, 물론 더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건전한 <세아가족> 분위기를 위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초능력? 하나로는 만족 못하지!

공간이동 능력이 있으면 스텝크스 꼭대기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보드를 타고 심해동굴에서 바다낚시를 하고 싶다. 외모변신 능력이 있으면 원빈의 얼굴과, 권상우의 몸매, 이선균의 목소리, 강동원의 키로 변해 여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물건이동 능력으로 운송차량 한 대 없는 운송업체를 만들겠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개인 병원을 차려 불치병 전문의사가 되겠다. 물론 치료비는 저렴하게...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북극과 남극은 온도를 낮추고 아프리카에는 비를 내리고 일본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마다 태풍을...



나에게 엄청난 초능력이 생긴다면?

생생 Talk, 생생 Action

누구나 한번쯤 해보는 상상이 있다. 영화 <X-man>의 울버린처럼, <점퍼>의 주인공처럼 공간이동을 하는 상상, 투명인간이 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상! 어떤 초능력이든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세아 가족들은 어떤 초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까?

세아로지스
영업기획팀
변재환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시공간 이동 능력자

만약 내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시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영화 <점퍼>에서처럼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아침은 뉴욕에서, 점심은 파리에서, 저녁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먹을 것이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피로를 날려야지. 영화에서는 공간이동만 가능했지만, 이왕이면 시간이동도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16세기로 돌아가서 이순신 장군님도 만나 뵙고 싶다. <엑스맨>에 나오는 초능력들은 워낙 강력해서 좀 버겁고,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정말 알차게 쓰겠다.

"초 + 능력"

1. 초 : 불을 밝히는 데 쓰는 물건의 하나
 2. 초 : 초록(抄錄)의 준말
 3. 초 : 노릇노릇하게 불에 볶음
 4. 초 : 기초(起草)의 준말
 5. 초 : 예전의 군대 편제의 하나
 6. 초 : 조미료의 하나
 7. 초 : 시간·각도·위경도(緯經度)에서 1/60
 8. 초 : '훨씬 뛰어난', '동떨어져 관계가 없는', '초월한'의 뜻!
- '초'에는 많은 뜻이 있다. 초를 태워 녹이고, 겨울이 되어 빛바랜 잎들을 초록으로 다시금 변하게 하고, 시간을 초 단위로 주물러도, 그 중 최고는 여덟 번째 '초월한' 즉, 초능력은 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아가려는 지금의 노력이라 생각하기에 나의 초능력은 나 자신이다.

한국번디
재경팀
김세현 대리



한국번디 광주
생산물류팀
정두호



자유롭게 전 세계 이곳저곳을 번쩍번쩍!

어디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순간이동 능력을 지니고 싶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볼 수 있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해서 인지 더욱 이런 능력을 얻고 싶은가 보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니, 고민 돼~

한 번쯤은 누구나 꿈꿔 보았을 테지만, 막상 선택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순간이동 능력 중에 많은 고민을 했다. 순간이동 능력을 선택한다면, 부산에서 상경한 나에게 주말마다 서울-부산을 오고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줄 것이다. 또한 원거리의 고객을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도 빨리 갈 수 있다. 휴가 시즌에는 교통체증도 걱정 없다. 내가 원하는 휴양지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는데! 앗, 그런데 열심히 고민하며 골랐건만 실제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

세아에삼
총무팀
김선영



순간이동 능력자가 돼도 하루가 너무 바쁠 것 같네

순간이동! 아침 6시 눈 뜨자마자 킬리만자로의 청정수로 세수를 하고, 마이애미 해변에서 음악을 들으며 조깅을, 에펠탑 아래 노천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커피에 샌드위치를 먹으며 신문 보는 거지. 점심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랍스타 요리를 먹고 오후엔 그리스 아테네 시내를 좀 걸어야지. 저녁엔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서 간단히 와인과 스테이크를! 자기 전에 북극에서 쏟아질 것 같은 별들과 오로라를 보며 명상을 해야겠다. 하하하! 나는 초능력자다!

파란 창공을 가르는 경비행기 체험

세 아 엠 앤 에스 영업 팀

요즘 세상에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울 것 같은, 경비행기에서 전해져오는 진동을 함께 느끼며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만끽한 세아엠앤에스 영업팀의 유쾌 상쾌 통쾌한 나들이가 하늘을 수놓는다.



첫 번째 체험자는 이민영 대리와 썩썩한 김경희 사우. 올상을 하고 겁을 내는 정순정 사우와는 달리 김경희 사우의 이륙 전 담담하고 시원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여유까지 보였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뜬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시화호가 푸르다. 시화호의 출렁이는 물결이 시야에 들어오자 돌연 겁이 난다. 은근슬쩍 시선을 돌려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본다.

다음은 남상욱 팀장과 정순정 사우 차례다. 남 팀장은 경비행기 체험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날 위해 기도해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 남상욱 팀장은 장난까지 치며 여유만만인 반면 정순정 사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먼저 체험한 이민영 대리와 김경희 사우가 안전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하늘 여행

설 새 없이 내린 비로 전국이 들썩였다. 기상상황에 따라 경비행기 체험의 당락이 달려있기에 비와 안개, 풍속 모두 중요했다. 경비행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1시간여 달려 찾아간 경기도 화성시 신외리 이착륙장. 여름이 물씬 느껴지는 초록빛 논과 들판이 싱그럽게 펼쳐진 이곳. 이런 곳에 경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할까 걱정하며 비포장도로를 지나니 형형색색의 경비행기가 마치 인사를 하듯 주르륵 줄을 맞춰 서 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건 아닐까 했는데 금세 쨍하네요, 하늘이.” 체험장에서 만난 남상욱 팀장이 노련한 경비행기 조종사처럼 날씨 얘기를 건넨다. 그의 말처럼 세아엠앤에스 영업팀의 나들이는 내리쬐는 햇살 탓에 오히려 뜨겁기까지 했다.

아직 바닥은 군데군데 웅덩이와 진흙이 있었지만 푸르게 펼쳐진 들판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을 자아낸다. 비행 체험은 오이도, 시화호를 지나 시화방 조제, 대부도, 그리고 신외리 이착륙장에 착륙하는 코스다.

여름빛을 닮은 티셔츠가 눈이 부시다. 이번 나들이를 위해 알록달록한 티셔츠를 고른 것은 센스 있는 안목의 김경희 사우와 정순정 사우. 강렬한 색상의 셔츠를 입은 그들의 모습이 싱그럽다.



하고 재미있으며 어르고 달래 정순정 사우를 태웠다. 떨어지는 비행기 두 대를 보며 남은 팀원들은 손을 흔들었다.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체험

세아엠앤에스 영업팀은 칠레, 멕시코 등지에서 몰리브덴 원석을 사오고, 또 판매까지 도맡아 한다. 구매와 수출 및 내수가 총 2800억이니 1인당 그룹 내 취급액이 700억이나 되는 셈이다. 늘 숫자와 시름하던 그들에게 끝없이 펼쳐진 논과 들판, 하늘은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다.

세아엠앤에스는 광양합금철이 세아의 가족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변경한 사명이다. 새로운 가족이 된지 어느덧 6개월여가 지났다. “광양합금철 시기의 수출이나 내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론 기회가 더 많을 것이기에 성취욕을 가지고 달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신계약서 받기로 했습니다. 하하” 농담 반 진담 속에서 남상욱 팀장의 팀원 사랑이 느껴졌다. 평생 같이 일하고 싶을 정도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은 거냐며 이민영 대리가 너스레를 떨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흥미진진했던 경비행기 체험도 끝을 향한다. 경비행기 체험이 재미있었는지 남상욱 팀장은 자격증에 대해 조종사에게 이것저것 묻는다. 경비행기 자격증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경비행기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기초지식, 항공기상과 교통법, 그리고 관제 등 무선통신에 관한 것들로 채워진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김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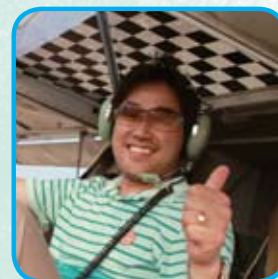
● 이민영 대리



● 정순정



● 남상욱 팀장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 보기도 전에 무섭다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타보면 그 흥분과 짜릿함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 보기도 전에 무섭다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타보면 그 흥분과 짜릿함을 알게 되죠.” 경비행기 체험을 하는 동안 안전하고 재미있게 조종을 해 주신 교관님이 경비행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처음 경비행기 체험을 한다고 할 때에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본 순간 무서워서 못 타겠다 싶었어요.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하하.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정순정 사우는 마지못해 탔지만 비행기에서 핸들을 잠깐 잡으며 조종을 해보았던 경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라며 배시시 웃었다.

아이테르 항공

라이트형제가 하늘을 날았던 그 첫 설렘처럼,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단한 일일체험부터 경량항공기 지정 면허 정규 교육까지 모두 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아가족 여러분은 자기를 얼마나 믿고 있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기 신뢰도 테스트

현재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가능한 한 불쑥 생각나는 대로, 절대로 오래 생각하지 말고 체크하도록 하세요.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자신을 똑바로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산한 후 결과를 확인하세요.

전혀맞지않음 ① 부분적으로맞음 ② 상당히많이맞음 ③ 완전히맞음 ④

1. 나를 남과 비교하는 일이 잦다.	①	②	③	④
2. 남들로 인해 쉽게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3.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낀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5. 실패할까 겁나서 아예 아무 일도 시작을 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일을 110% 해내야 직성이 풀린다.	①	②	③	④
7.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남들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이기가 겁난다.	①	②	③	④
9. 항상 남들을 만족시키고 싶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11. 성공한 사람을 보면 샘이 난다.	①	②	③	④
12.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13. 나 자신과 남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 보여야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14. 실수 때문에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칭찬을 받으면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16. 스스로 실패자라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①	②	③	④
17. 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우울하고 기가 꺾여 있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19. 나에 대한 평판이 혹시 나빠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약하다는 것 자체가 싫다.	①	②	③	④
21. 약점을 보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22. 내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23.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즉시 '나쁜 말'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24.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5. 남들 앞에서 나의 약점과 실수를 숨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6. 나와 남을 비교할 경우 불리한 쪽은 항상 나다.	①	②	③	④
27. 자신에 대해 화가 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8. 항상 스스로에게 모든 일을 똑바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29. 나 자신과 내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0. 외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출처
(자기를 믿지 못하는 병)
로프 메르클레 지음

0~10점

당신의 자기 가치감은 매우 뚜렷하고 든든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인성입니다.

11~30점

당신의 인생은 몇 개의 고비 때문에 활짝 꽃 피우지 못했군요. 자기 가치감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조금만 더 믿어 보세요.

31~60점

절망할 건 없어요. 당신의 경우 자기 신뢰라든가 자기 가치감이 아직 단단하지는 않지만 자기 존중은 잃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가 조금 심각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도 좋은 점과 자신감을 가질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집중해서 스스로와 씨름할 각오를 하세요.

61~90점

자기 가치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설령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말도 못하게 불행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당신의 경우가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니까 우선 마음을 편하게 먹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 가치감을 강화하고 싶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아에샵 풀잎마을 봉사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길 한가족’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아에샵은 가족적인 분위기의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그 안에서 대학생활 이후 오랜만에 접해본 봉사다운 봉사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봉사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글 ●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송은숙

10년째 이어진 풀잎마을과의 인연
창원에서 진해와 인접한 신촌동에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풀잎마을이라는 기관이 있다. 뇌병변 지체 장애인들에게 생활, 의료, 사회, 심리,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자립과 잔존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세아에샵에서는 2002년부터 풀잎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장애우들의 목욕 돕는 일을 했다. 2006년 무렵에는 장애우들이 수요일 예배에 갈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춰 이동을 도와주고 예배하는 동안 옆에서 보살펴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사내에 봉사동아리 ‘세아드림’이 발족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풀잎마을의 봉사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풀잎마을 봉사활동은 시작부터 동참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기억에서 잊혀졌다. 그런데 2005년 복직을 했을 무렵에도 풀잎마을 봉사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더욱 마음을 다해, 그것도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사내 직원들 모임인 ‘다사랑회’가 수요일 예배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연말에는 풀잎마을 장애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펼쳐졌다. 다시 일을 시작했을 당시 음악회는 벌써 4회째를 맞고 있었다. ‘다사랑회’가 중심이 되어 사내 직원들이 직접 노래, 춤, 쿼츠, 합창, 연주, 패션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했다. 음악회를 앞두고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개최하여 그 수익으로 간식거리를 장만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자 직원들은 꼬박한 달여를 틔우는 대로 연습에 몰두했다. 일과 공연, 또 봉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의 넘치는 끼, 웃음, 감동을 느끼며 준비할 수 있었고, 그만큼 관계는 돈독해졌다. 이런 마음은 공연을 통해 풀잎마을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음악회는 회를 거듭해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훌륭하게 감독 역할을 해주고 열정을 담아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과 든든한 주변의 후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었다. 그렇게 7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현재 세아에샵의 사내 봉사동아리 세아드림에는 평소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해온 자율 봉사단원들과 사내 지원자, 또 신입사원들까지 약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풀잎마을은 두 달에 한 번 방문한다. 풀잎마을 장애우들의 목욕을 돕는 일만큼은 언제나 전원 참석률을 기록할 만큼 모두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전에 ‘다사랑회’ 모임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풀잎마을 목욕봉사 때마다 나는 돌고래방 장애우 6명을 담당한다. 32살, 38살의 1급 지체 장애우부터 6살의 어린 장애우까지 있다. 32살 미영 씨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는 1급 장애우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주말을 이용하여 목욕을 한다. 두 번째 만났을 때였던 것 같다. 미영 씨를 씻겨주려는데 몸이 경직되어 있어 옷을 벗기기가 아주 힘이 들었다. 그 와중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영 씨의 몸은 어른이지만 지능은 2-3세 아이와 같다. 아이 세 명을 키운 실력을 발휘해서 재빨리 처리해주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미영 씨가 나를 정말 잘 알아본다. 두 달에 한 번인데도, 문에 들어서면 미영 씨가 온 몸을 경직시키고 눈가에 웃음을 머금는다. 날 알아본 것이다. 목욕봉사를 가는 날 아침이면 미영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모처럼 쉬는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곤욕이지만,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다잡아진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몸이 고된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행복은 무엇에도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다른 봉사활동까지도 마음 쓸 여유가 있지는 않다.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잘 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만은 애착을 갖고 있다. 시작은 권유에 의해서였지만 해를 넘기고 횟수가 늘어가면서 의무감과 책임감은 행복으로 다가왔다. 의욕이 있지만 마음먹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봉사활동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SeAH NEWS

2011
JULY+August

VOL . 3 3 4

» Group News

STAK IMP 수료식 개최



철강 및 비철강 업종 업체들의 공동 MBA 과정인 STAK IMP 수료식이 8월 1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열렸다. 수료식은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 TTC동양 손준원 부회장, 고려제강 이태준 부사장을 비롯한 손성규 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TAK IMP(Intensive Management Program)는 세아그룹, TCC동양, 고려제강그룹, 아세아시멘트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개설해 만든 단기 집중형 MBA 과정으로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 위탁해 운영됐다.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간 실시된 교육과정에는 각사에서 선발된 차·부장급 27명이 참여, 정규 MBA 과정의 주요 12개 과목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현업과 관련된 테마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한편, 세아홀딩스 김상진 수석이 개별 성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올려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K55’ 본격 생산 · 수출

세아제강이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API 규격의 대구경 유정용 강관(OCTG) ‘K55’의 상용 생산에 성공, 560t을 유럽과 중동에 납품했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외경 18인치~20인치로 현존 상용화 제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API X80급 인장강도를 지녔다. 그동안 한국에는 K55를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술이 없었지만, 세아제강과 포스코가 2006년 11월부터 ‘미래도시 조화형 LIFE LINE용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정부과제 사업과 병행해 기술 개발을 진행한 결과, 세아제강의 전기저항용접(ERW) 기술에 포스코의 성분 설계 및 고정밀 냉각제어 기술을 더해 K55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중동특강 실시

세아제강은 7월 13일 외교안보연구원 인남식 교수를 초빙하여 “최근 중동지역 정세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본사에서 진행된 특강에는 임원 및 팀장을 비롯해 세아홀딩스와 그룹 관계사의 주요 임원 및 팀장들도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동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동의 역학 관계, 또한 4월 SeAH Steel UAE의 API 강관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던 아랍에미리트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이 다루어졌다.

» 세아베스틸

2011년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수상



2011년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6월 10일 전북대에서 개최됐다. 전북 지역대회 사상 가장 많은 팀이 참가, 총 30개 분임조가 경쟁한 결과, 세아베스틸 소형정정팀 월드바B 소그룹이 ‘교정공정 정지시간 감소로 고탄소강 생산목표 달성’을 주제로 현장개선 부문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자유형식 부문에 출전한 품질보증팀 메탈리스트 소그룹은 ‘단조재 공정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두 소그룹은 8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기술연구소 IR52 장영실상 수상



6월 28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장영실상 시상식에서 세아베스틸이 22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14~26주 상상이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조울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종용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상무 등이 참석했다. 세아베스틸은 현대자동차, 동우열처리와 공동 개발한 ‘고온-진공 침탄 전용 소재-공법 적용 CVT[무단변속기] 부품’으로 수상에 이르렀다. 이날 시상대에는 윤기수 전무와 기술연구소 왕성도 이사가 올랐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세아베스틸은 7월 8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2011년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원, 팀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문의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승휘 대표는 “2011년 상반기 목표의 초과 달성은 전 부문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평가하며,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큰 성과 달성을 이뤘다”고 전했다.

2011년 2/4분기 우수사원 포상



세아베스틸 2분기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이 7월 11일 각 본부에서 실시됐다. 이번 2분기 우수사원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원들을 각 팀에서 추천 받아 기능직과 사무기술직을 포함해 총 50명이 선정됐다. 포상자들에게는 표창장과 포상이 주어졌다.

2011년 아빠와 함께 현장체험 2차 여행 개최



세아베스틸은 7월 9일 전북 무주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 2차 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2차 여행은 세아베스틸 사원들과 사원 자녀 약 88명이 참여하여 아빠와 함께하는 레프팅과 옥수수 따기 체험으로 진행됐다. 현장체험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은 “색다른 체험과 경험이 좋았다”며, “아빠와 함께여서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찬특강 개최



세아베스틸은 7월 14일 산업연구원센터 소장 김주한 박사를 초청,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와 당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리츠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 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철강 수급구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철강 소비, 철강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과제 등이 다루어졌다. 조찬 특강에는 임원을 비롯한 팀장, 협력업체 대표 등 약 65명이 참석했다.

» 세아특수강

노사,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



세아특수강 노사는 2011년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고 7월 28일 포항공장에서 ‘2011년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세아특수강은 1988년 창립 이래 23년간 무분규를 달성하며 모범적인 노사 간 상생의 교섭문화를 이어왔다. 이번 무교섭 타결로 세아특수강은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최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부품소재기업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세아특수강 TPM 최우수 기업상 수상



세아특수강은 6월 8~9일 한국표준협회(KSA)와 대한설비관리학회(KIPE)가 공동 주최하는 ‘2011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에서 TPM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했다. TPM 최우수 기업상은 생산성 향상 및 낭비 제거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목적의 시상제도이다. 세아특수강은 2004년 TPM을 도입, ‘제품 차별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방침과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 인재 양성과 설비 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다수의 차별화된 품질로 자동차의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충주공장, 품질경영상 수상

6월 1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11년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충주공장이 품질경영상을 수상했다. 평소 품질 향상을 공장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던 노경우 충주공장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품질 문제로 고객들의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생산 제품의 품질에 더욱 만전을 기함은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 현장의 혁신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품질혁신 유공자 부문에서 충주공장 지원혁신팀 혁신파트 임종혁 대리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 한국번디

사명 변경 및 비전 수립 워크숍 실시



한국번디는 7월 5~6일 양일에 걸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수립과 사명 변경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비전교육원 이동근 상무를 초빙해 새로운 목표 설정과 비전 공동체 전략 수립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화합을 다지며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 비전과 사명 변경에 대한 1차 안을 도출했다.

튜버스 공연 개최



7월 21일 한국번디 밴드동아리 튜버스가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드림을 맡고 있는 연구3팀 심재평 팀장님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한국번디 사내밴드 튜버스는 이날 ‘The Final Countdown’을 시작으로 ‘볼로이아’, ‘해아’ 등을 연주하며 열창했다. 지난해 초 가진 첫 공연 후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튜버스는 두 번째 공연도 큰 호응을 속에 무사히 마쳐 밴드동아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광주공장, 6 Sigma GB 자격평가 실시



7월 17일 실시한 6 Sigma GB 자격시험에서 37명의 응시자 중 15명이 최종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다. 광주공장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4개월 간 한국경영혁신컨설팅과 협력하여 6 Sigma Green Belt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해왔다. 본 교육은 품질경영 8대 원칙에 입각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사고와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품질불량 Zero, 수율 향상, 고객만족 향상을 통해 경영성과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편, 자격 취득에 실패한 직원들을 위해 하반기에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광주공장 Book Cafe Open



광주공장은 방문고객과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Book Cafe를 열었다. 한국번디의 금연사업장 추진에 맞춰 흡연실을 새롭게 Book Cafe로 탈바꿈시켜 협력업체나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픈 후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 세아에샵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 개최



세아에샵은 6월 17, 18일 양일간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 11명, 가족 25여 명, 임직원 18여 명 등 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 공장견학을 시작으로 신입사원들이 준비한 특

별공연,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 등으로 진행됐으며, 둘째 날은 거가대교 전망대와 거제 포로수용소를 방문했다. 세아에샵은 가족행사를 통해 신입사원 가족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입사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있다.

풀잎마을 목욕봉사 활동참여



세아에샵 사내 봉사모임 ‘세아드림’이 6월 25일 창원 신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 ‘풀잎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활동은 두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정기 목욕봉사활동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총 9명이 참석한 이번 봉사활동은 2시간여 동안 이루어졌다. “혼자 힘으로 목도 가누기 힘든 1급 지체 장애자 한 명이 우리를 알아보고 올 때마다 활짝 웃어준다”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전했다.

Work Smart 1주년 행사 개최



세아에샵은 7월 13일 사무직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Work Smart 활동 1주년 기념 특별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STEP 2012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무 제안제도 Work Smart 활동 시작 1주년을 기념하고, 우수 제안자 포상 및 특강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유덕상 대표는 “회사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Work Smart 활동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으로 인문학 전문가 박재희 강사의 “손자병법과 생존전략” 강의를 진행했다.

상반기 개선과제테마 발표대회 개최

세아에샵은 7월 14일 2011년 상반기 개선과제테마 사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분임조에서 총 13건의 개선테마를 가지고 열린 경쟁을 벌였다. 최우수상은 “비산방지차구 개선으로 비산량

50% 감소” 활동을 전개한 전처리 A팀이 수상했다. 특히 전처리 A팀은 상반기에 해결한 2건의 테마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수상팀 시상은 8월 조회에 실시될 예정이다.

컴퓨터 유희전력 차단 솔루션 ‘에코터치’ 설치

세아에샵은 컴퓨터 유희전력 차단 솔루션인 ‘에코터치’를 7월 28일 시범 설치했다. 8월에서 11월까지 시범 운영될 ‘에코터치’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환경수도 창원, 그린오피스 경연대회” 참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월 단위로 컴퓨터를 통한 절감 전력을 측정하게 된다. 세아에샵은 에코터치의 설치로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사내 원가절감활동에 기여하고, 창원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에도 동참하게 됐다.

» 강남도시가스

구로소방서와 업무협약 체결



강남도시가스는 6월 22일 구로소방서에서 구로소방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와 함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과학적 화재감식 능력 향상, 그리고 선진형 화재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유관기관의 상호 전문 분야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강남도시가스는 구로소방서와의 협력 아래 가스사고 및 기타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 세아로지스

‘대학생-지역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대학생 방문



경상북도 소재의 영남대, 대구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여 명이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세아로지스 포항 본사를 방문했다. 이는 6월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역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기업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학생 탐방은 세아그룹 홍보 동영상 시청, 회사현황 소개, 인사 담당자 및 취업 선배와의 대화,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서 학생들의 취업 성공전략, 근무 여건, 분위기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은 회사를 홍보하고 대학생들은 기업의 정보를 공유했다.

» 세아이앤티

터보사업부 산업안전교육 실시



터보사업부는 7월 19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혹서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 인 무재해 사업장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 Foshan SeAH Precision Metal

포산공장 이전 착공식 거행



Foshan SeAH Precision Metal이 중국시장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중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월11일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건설될 신공장의 착공식을 거행했다. 다수의 중국 정부부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규동 대표는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냉장고 및 자동차용 튜브 생산기지가 될 것을 자신”하며,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신공장은 201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입사**김윤성 사업개발1파트¹ 신원철(전입) 성과관리파트

세아제강

●입사**예준희 본사 회계팀¹ 함형돈 본사 실수요팀¹ 이솔잎 본사 STS영업팀¹ 조현석 포항 생산기술팀¹ 박지호 군산 생산1팀¹ 조희영 군산 생산2팀¹ 문민수 군산 생산2팀¹ 안봉찬 군산 설비팀¹ 김양우 강관2 품질경영팀¹ 전형진 강관2 생산팀¹ 노은국 부산실수요팀
●결혼**이재준 본사 수출2팀¹ 김학준 군산 품질경영
●출산**김상희 포항 업무지원팀¹ 노재연 포항 안전환경팀¹ 박형우 포항 공장혁신팀¹ 설은철 창원 생산팀¹ 유상우 군산 생산2팀¹ 박진배 강관2 품질경영팀
●조의**허성화 본사 회계팀(부친)¹ 홍대우 본사 생산계획팀(조모)¹ 김종민 포항 품질경영팀(조모)¹ 서정열 포항 생산1팀(장인)¹ 김세홍 포항 생산2팀(장인)¹ 김원백 포항 생산2팀(모친)¹ 장흥석 포항 생산2팀(모친)¹ 최현규 군산 생산2팀(부친)

세아베스틸

●결혼**신경식 구매2팀¹ 심성식 안전환경팀¹ 이민구 재무팀
●조의**유재형 제강팀(부친)¹ 소병기 소형압연팀(모친)¹ 최광웅 연주팀(모친)¹ 김윤현 압연설비팀(모친)¹ 조주현 주조팀(모친)¹ 정규성 연주팀(장인)¹ 박영구 일반단조팀(장인)

세아특수강

●입사**최현정 대구영업소¹ 진선미 충주 지원혁신팀¹ ●결혼**김진호 충주2공장 설비팀¹ ●출산**이동진 경영기획팀
●조의**김원석 포항 설비팀(장모)¹ 박용현 포항 생산팀(부친)¹ 장기형 포항 생산팀(부친)¹ 송용석 수주관리팀(장인)

한국번디

●조의**오호석 평택 생산팀(백부)¹ 정광진 평택 품질경영팀(부친)¹ 정선구 평택 생산팀(장모)¹ 오봉주 광주 생산팀(백부)

세아에샵

●입사**김영민 총무팀¹ ●결혼**허영철 제품개발팀

강남도시가스

●입사**문병중 공급지원팀¹ ●출산**이익상 영업관리팀¹ 천대영 공급지원팀

세아로지스

●입사**장성수 본사 재경기획팀¹ 오영진 본사 업무지원팀¹ ●출산**박성주 본사 경영혁신팀

세아이앤티

●입사**최덕수 플랜트 화공기기 생산팀¹ 이창환 플랜트 화공기기 영업1팀¹ 박정훈 플랜트 화공기기 영업2팀¹ 신용배 플랜트 화공기기 영업2팀¹ 김광줄 플랜트 생산기술담당임원¹ 주대호 플랜트 산업기기 생산팀¹ 조건찬 플랜트 산업기기 생산팀¹ 김민재 플랜트 산업기기 영업팀¹ 박승현 플랜트 산업기기 영업팀¹ 전현명 토목건축 토목건축팀¹ 강석진 토목건축 토목건축팀¹ 추광엽 터보 품질보증팀¹ 서영곤 터보 태양전자개발팀¹ 박홍순 터보 생산팀

Quiz¹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업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추민성 경북 경주시 안강읍
박정현 경기 군포시 당정동
박수연 경기 광명시 하안3동
노재언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동
강보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이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민지 부산 사상구 학장동
권정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용철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지원혁신팀(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스엡 경영지원실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이상기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SeAH Reader's

4기 챌린지 리더에 관한 기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세아가족 사보를 보면서 언제 나 세아인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본받아 제게 주어진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권정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개같이 나타나는 정의의 원터우먼’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아직 직장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처음에는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노력하고 노력 해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김영숙 과장님처럼 멋진 원터우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성실을 주제로 한 스페셜 테마가 가장 좋았습니다. 성실한 기업의 정의와 세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칼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속에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실’만큼 기업의 영속성에 큰 무기가 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유재범 서울 관악구 행운동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세아가족 신바람 캠페인 「신뢰」편

서로의 믿음을 한 계단씩 쌓아가는 법

“정 대리, 난 자넨 믿어”

“회사에서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크네”

“팀장님, **파이팅**입니다!”

믿음과 힘을 주는 말 한 마디.

평소 동료나 팀원들에게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은 한 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올려야만 하는 높은 탑과 같습니다.

오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 담긴 힘은

의외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WANTED

\$5000

악당들은 모두 비켜라!
정의의 수호자
조로가 왔다!



세아제강 포항 생산1팀 소경1공장장 안상렬
바람처럼 날렵한 몸놀림, 빛나는 눈동자
비장의 검술로 정의를 수호하는 세아의 영웅!